소금농사 풍년 기원, 활기 대신 걱정 태산

신안 증도 올 첫 '채렴식' 가보니

'염전노예' 낙인 주민들 "무슨 일 없어야" 한숨
인부 찾기 힘들어 생산 차질 빚지 않을까 고심
천일염생산자協, '자정결의' 이미지 개선 역력

지난 28일 채렴식이 열린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서 염부들이 바닷물을 건조해 얻은 소금을 밀대로 밀어 한 곳에 모으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지난 27일,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에는 이른 아침부터 200여명의 천일염 생산자들이 모였다. 한 해의 안녕과 소금농사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3월 28일이면 열리는 '채렴식'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다. 채렴식이 열린 이날은 신안의 낮 최고기온이 22도까지 오르고, 봄을 재촉하는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 했다. 그렇지만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지난해보다 100여명이나 줄었고, 화창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표정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풍물놀이 등 본격적인 채렴식이 시작된 후에도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숨 짓는 이들은 "무슨 일 없느냐"며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염전노예'사건이 알려진 뒤, '천사의 섬'에서 '노예의 섬'으로 낙인 찍혀 버린 주민들은 '염전분위기'를 묻기만 해도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이들은 신안군 천일염이란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신안 증도 태평염전에서 30년 간 근무한 이모(64)씨는 "채렴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천일염 생산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염부를 구하는 게 훨씬 어려워져서 예정했던 생산량을 채우는데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매년 3월 28일 열리던 채렴식은 올해는 보다 많은 염전 관계자들의 참가를 독려키 위해 증도(28일)와 비금도(29일)에서 하루 차이로 나눠 진행됐다. 그리고 이른바 '염전 노예'에 대한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본부가 차려진 신안 신의도는 채렴식을 오는 4월 15일로 2주간 시기를 늦췄다.

신안군은 전국 염전 1121개소 중 854개소(83%)가 몰려 있다. 지난해 전국 소금 생산량(42만t)의 절반이 넘는 29만t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단일 염전으로는 전국 최대규모의 태평염전의 크기만 해도 68만4000평에 달한다. 축구장(약 2000평)의 300배가 넘는 크기다.

그러나, 올해 초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염전은 물론 천일염에 대한 비난 여론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인력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신안군이 조사한 염전 채용 근로자는 모두 1826명, 올해 2월에는 그 수가 375명으로 1500명가량 줄었다.

경찰의 수사로 불법 고용된 장애인과 노숙자가 떠난데다, 업자들도 스스로 인권문제가 염려되는 인원은 아예 내보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소한의 인원이나마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천일염'의 이미지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내부 논의도 뒷받침됐다는 게 업주들의 항변이다.

증도 주민 이모(여·58)씨는 "지금은 일꾼이 상전이다"며 인력난을 호소했다. 예전에는 직업소개서에서 염부 한명을 소개 받는데 400만원가량을 소개비 명목으로 건넸는데 최근에는 그 돈을 줘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염주들은 근로환경 개선을 다짐하며 염전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실제 천일염 생산자연합회가 최근 개최한 자정결의대회는 근로자 부당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고, 신안군도 인권 침해사건이 발생한 염전은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뒤늦은 개선책 마련에 당장 정상 인력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는 천일염 생산량의 하락과 연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채렴식장 내 곳곳에서 감지됐다. 염부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데로 나빠진데다, "일이 어려워 귀신도 흉내를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염전 일에 나서는 인력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조정순(여·58)씨는 "섬지역은 교통편도 나쁘고, 농사일에도 염부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일부일 뿐이다"며 "신안을 노예 섬으로 매도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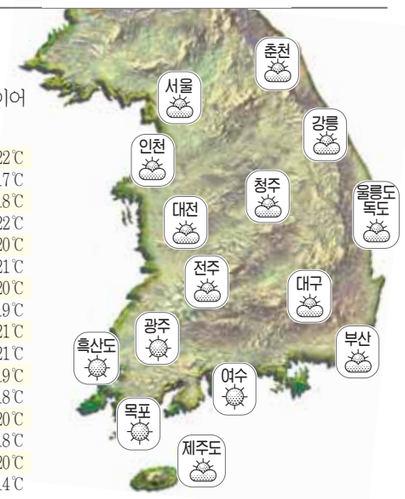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1분 해짐 18시 53분 | 달뜸 06시 24분 달짐 19시 30분

미세먼지 '보통'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 이어지겠다.

광 주	맑음	9/22℃
목 포	맑음	2/17℃
여 수	맑음	12/18℃
나 주	맑음	6/22℃
완 도	맑음	9/20℃
구 례	맑음	8/21℃
강 진	맑음	7/20℃
해 남	맑음	6/19℃
장 흥	맑음	6/21℃
순 천	맑음	11/21℃
영 광	맑음	5/19℃
진 도	맑음	7/18℃
전 주	맑음	8/20℃
군 산	맑음	7/18℃
남 원	맑음	6/20℃
흑산도	맑음	9/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5m

	밀물	썰물
목포	02:23 14:44	07:38 19:57
여수	09:33 21:52	03:11 15:3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4/1(화)	2(수)	3(목)	4(금)	5(토)	6(일)
날 씨						
최저/최고	8/22	8/22	8/19	7/17	7/18	6/18

철 대사 조절 세균 감염·증식 억제
신개념 항균제 후보물질 찾아냈다

전남대 연구진 발견

전남대학교 연구진이 철(Fe) 대사 조절을 통해 병원성 세균 감염과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항균제 후보물질을 찾아냈다.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이 물질을 슈퍼박테리아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 생명과학기술학부 최흥식 교수와 의과대학 최현일 교수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지(Nature Medicine) 지난 23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이 연구결과는 세균의 감염과 증식에 필요한 대식세포의 철 함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병원성 세균에 직접 작용하는 기존 항생제와 달리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개념 항균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철 함량 조절에 관여하는 핵심 호르몬인 헵시딘의 발현을 조절하는 이알알감마와 결합, 그 활성을 억제하는 저분자 물질(GSK5182)이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 증식에 필수인자인 철 함량을 낮춰 항균효과를 보이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를 응용한 항균제가 개발될 경우 항생제 다재 내성균(슈퍼박테리아)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살모넬라가 대식세포에서 증식할 때 이알알감마가 헵시딘을 통해 살모넬라 증식을 촉진시키는 것에 착안, 이알알감마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GSK5182가 대식세포 내 철 함량을 낮춰 살모넬라 증식을 억제할 것이라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 항생제와 달리 항생제 내성균주, 정상세균 파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개념 병원성 세균 감염 치료법의 근본원리를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중3 짓누른 '삶의 무게'

정신지체 2급 부모에 조부모도 장애·치매 앓아
실질적 가장 역할…가족 모두 잠든 새 목숨 끊어

30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장례식장. 50대 남성이 장례식장 내 영안실 앞을 쳇바퀴 돌 듯 돌았다. 지난 27일 아파트에서 투신, 15세 짧은 생을 마감한 아들이 누워 있는 영안실이다. "내 아들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 올 거야."

정신지체 2급인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듯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영안실 앞을 맴돌았다. 아들 시신이 화장장으로 떠난 뒤에도 그의 중얼거림과 서성거림은 계속됐다.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15살 난 중학생 A군이 지난 27일 숨졌다. 밤 10시 30분께 함께 살던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스스로 투신했다. 유서는 없었다.

15세 중학생의 어깨를 짓누르며 죽음으로 내몬 '무거운 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중학교 3학년,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기에 바쁜 시기지만 A군은 할아버지·할머니에 아빠·엄마, 동생까지 6명을 책임지는 가장이나 다름없었다.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뇌병변 장애인이었고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정신 지체 2급 장애인인 아버지와 같은 병력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엄마도 A군의 짐을 덜어줄 수 없었다. 투정 부리기 좋아하는 초등학교 5학년인 동생도 외면할 수 없는 삶의 무게였다.

학교를 가는 시각, 요양보호사가 장애 조부모를 챙겼지만 가슴 한 켠에는 함께 있지 못하는 불안함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교 친구들은 A군의 어려운 기색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친구들과 밝게 어울렸다. 잠깐 다녔던 학원비를 내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도와주겠다는 지인도 나타났지만 "괜찮다"며 거절할 정도로 자립심도 강했다. 다섯식구의 실질적 가장역할을 하면서도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방과후에는 다음날 먹을거리를 챙기고 집안 청소 등을 책임져야 했지만 15살 짜리 중학생은 힘들어 하지 않았다. 가끔 초등학생 동생과 티격태격하면서도 잠들 땐 이불을 챙겨주는 어른 스런 형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병(病)으로 둘러싸인 가족의 무게는 A군의 좁은 어깨로는 감당하기엔 버거웠다.

감수성 예민한 시기, 가족의 병은 어린 중학생의 어깨를 짓눌렀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오는 적은 돈 으로는 5인 가족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15살짜리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와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되는 할머니에 정신 병력인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참아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한숨 돌릴 틈도 없었다.

울분을 속으로 삭이다 보니 삶의 무게는 점점 더 힘들어만 갔다. 결국 A군은 어두운 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살기 힘들어 막막해 울부짖는 A군의 절규를 들어줄 사람도, 그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덜어줄 보호막도 멀리 있었다. A군 동생(12)은 장례식장에서도 "형, 말도 없이 어디 갔어"라며 울먹였다. 동생은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은 진행형이다.

한편, 광산경찰은 A군이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들과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고민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